

전남도,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 홍보



6월14일까지 한 달간 22개 시·군과 집중 홍보 추진

긴급 복지지원 필요한 위기가구 지원 온힘

전남도가 오는 6월 14일까지 한 달간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희망을 전하는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홍보는 지난해 9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를 더 많은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한다. '힘겨울 땐 120,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달려갑니다'를 주제로 22개 시·군과 함께 홍보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차량 부착용 홍보 스티커 6만

5000개 배부를 시작으로 홍보 포스터 8000매 부착, 5월 중 반상회비 배포, 전남도 주관 각종 교육교재와 텔레비전·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도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시·군에선 집중 홍보 기간 다중접합장소 등에 설치된 882개 전광판에 홍보 글을 송출하고 5월 중 반상회·이동장회의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는 지금까지 상담 민원 618건을 처리했다. 이 중 94건이 복지 민원으로 경제위기에

농민 12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했고, 82건의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 지원을 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선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와 연계해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군·읍·면·동 단위로 운영하는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2022년까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총 9만5268가구에 대해 148억 3800만원을 지원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는 단 1명이라도 위기 상황에서 보호하는 것이 운영 목표"라며 "위기콜 120번과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연계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생존 위기' 목포대·순천대, 전남도립대에 통합 구애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벌대학30' 공모 마감 앞두고 전남지역 국립대학 2곳이 전남도립대와 '통폐합'을 전제로 혁신방안 마련 경쟁을 펼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31일 공모 마감인 '글로벌대학30' 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혁신과 대학 발전 선도를 위한 혁신 의지가 있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 대학들이 최후의 회생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전남도내에선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모에 뛰어든 가운데 전남도립대와 '통폐합'을 전제로 한 혁신 방안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목포대는 전남도립대에 교육부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 내용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 운영 방안 이어 대학 통폐합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전남도립대는 현재 순천대와 통폐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 대학은 통합 등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회의를 총 3차례 진행하면서 논의에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내 국립대학들이 도립대와 '통폐합'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가 '글로벌대학30' 선정 시 혁신성 성과지표로 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타 지역 부산에서도 글로벌대학30 공모를 앞두고 부산대학교가 부산교대와 통폐합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내 국립대와 도립대 통합 논의와 맞물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도 최근 도내 국립대 통합을 언급해 이목이 쏠린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개최한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서 전남도내 국립과대 설립 현안 해결을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국립과대 유지를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해야 한다는 도민들 이야기가 있다"며 "대학은 하나지만 병원은 동·서부 양쪽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이는 의과대 유치를 놓고 촉발된 동·서 갈등을 봉합하고 의료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립과대 추진위원장인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대학 생존을 위해선 전남도가 절박한 마음으로 대학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며 "다지자체가 1도 1국립대 체제로 가고 있지만 목포대·순천대 통합 논의는 국립과대 유지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대학 혁신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이슬비기자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열차 내 응급환자 발생대비 구호교육 시행



열차승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교육 "위기관리능력 한단계 향상 계기"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5일 열차승무원을 대상으로 열차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구호 실습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관광시즌을 맞이하여 열차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서비스를 강화하고, 열차 내 위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순천소방서 구조구급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이 중요함에 따라 초기 조치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요령 및 심폐소생술 방법을 직접 실습함으로써 에기치 않는 열차내 위급 상황에 신속히 처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했다.

응급구호교육을 주관한 여수고속철도열차승무사업소 관계자는 "응급조치 구호실습을 통해 열차승무원의 위기관리능력이 한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하도록 안전서비스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는 열차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각 열차별로 자동심장충격기와 산소캔을 비치하고 있으며, 이례상황에 대비한 확성기·안전지시봉·비상생수(고속열차 한) 등을 운용 중에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바람에 날렸는데 인증 취소"... '비의도적 농약 오염' 재심사 의무화

개정법령 시행...전남도, 친환경농업 인증 취소 분쟁 해소 기대

친환경농업 인증과 관련해 '비의도적 농약 오염' 재심사를 의무화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역울한 인증 취소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재심사를 담은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지로서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과 소비 촉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은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날려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 취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인증기관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

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했다.

주요 재심사 요건은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면 인증기관은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

유로 합성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시정조치 되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또 무농약원료 가공식품도 유기농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유덕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적극 발굴·건의해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 1.발전설비용량: 1.1 MW
- 2.사업개시예정일: 2023. 06
- 3.사업운영기간: 2023. 06 ~ 2048. 05(예정)
-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2023. 05. 18. ~ 2023. 06. 01.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시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전사 태양광발전소	이정신	99.45	(1,246㎡/11,570㎡)
2 미야기 태양광발전소	정성용	99.45	(1,057㎡/11,570㎡)
3 만이2호 태양광발전소	박해한	99.45	(1,101㎡/11,570㎡)
4 봉황 태양광발전소	김부열	99.45	(972㎡/11,570㎡)
5 다해1호 태양광발전소	송수라	99.45	(905㎡/11,570㎡)
6 선 태양광발전소	문형준	99.45	(948㎡/11,570㎡)
7 민희 태양광발전소	김민희	99.45	(1,211㎡/11,570㎡)
8 정원3호 태양광발전소	안경연	99.45	(956㎡/11,570㎡)
9 회망 태양광발전소	정미송	99.45	(980㎡/11,570㎡)
10 봉황솔라팜 태양광발전소	최주정	99.45	(1,017㎡/11,570㎡)
11 해누리1호 태양광발전소	송경옥	99.45	(1,177㎡/11,570㎡)

전남 나주시 봉황면 황송리 891,892,1-4,1-28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2016년	1.1배
2017년	1.7배
2018년	2.1배
2019년	2.7배
2023년	1.77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험료 10%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보험료 1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3 느단 441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조동국 (830808-1559217)
최 후 주 소 : 광주 북구 효산로 3-1(용봉동)

위 망 조동국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5월 18일

공 고 인 : 조연기.
주 소 :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375-19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5월 11일
공 고 기 간 : 2023. 5. 18 ~ 2023. 7. 18